

지명을 통한 장소정체성 재현과 지명영역의 변화: 충주지역 지명을 사례로

이 영 희*

The Change of Geographical Names' Territory and Representation of Place Identity with Place Names : A Case Study of Chungju Geographical Names

Lee, Younghee*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지명연구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장소정체성과 스케일 정치 그리고 영역경합의 새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충주지역 지명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먼저 장소정체성과 관련하여 새로 바뀐 충주시 '수안보면'은 이전의 지명인 상모면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인 온천의 속성을 크게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구성 조건인 '수적 유일성'과 '질적 동일성', 그리고 '자아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의 장소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둘째, 지명을 통한 스케일 정치는 스케일의 상승과 하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지명 스케일 상승의 사례로는 충주시 이류면의 옛 지명인 이안면을 들 수 있고, 하강의 사례로는 조선시대 읍호승강제에 따른 충주의 읍호승강과 1917년 행정구역개편 때 충주군현 지명이 충주면으로 축소된 경우와 일본에 의한 월악산의 한자지명의 변경을 들 수 있다. 셋째, 지명 영역변화의 사례로는 지명 표기자가 지명 영역과 더불어 변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지명 표기자가 지명 영역과 함께 변화한 사례로는 충주시 용두동과 이류면 금곡리가 있다. 지명 표기자가 변하지 않으면서 지명 영역이 변화한 경우는 현재 충주시를 동서로 흐르는 달천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 는 지명이 장소정체성을 재현하고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충주, 지명, 장소정체성, 스케일 정치, 지명영역

Abstract :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Chungju geographical names using the concepts which are the place identity, the politics of scale, and the competition of place names' territory for the diverse study methods of geographical names. According to this results, the new name of 'Suanbo-Myun' revealed the place identity, because it has not only the property of 'Suanbo hot spring' but also the three conditions called 'the numerical solitary', 'the qualitative identity', and 'the self-identity' which are the conditions for the place identity. In relation to the politics of scale through place names, the example of scaling up is 'Yian-Myun' which is former name of 'Chungju city Yiru-Myun', and the cases of scaling down are 'the up and down of Chungju Up Ho', the reductional change from 'Chungju-Gun' to 'Chungju-Myun' and the change of Chinese name of the 'Wolak Mountain'. Lastly, the examples of place names' territory change are two types. One is 'Chungju Yongdu-Dong' and 'Yiru-Myune Geungok-Ri' for the cases that the place name and its territory were changed. The other is 'Dalchon river' that the place name's territory was only change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place names are useful in order to represent and construct the place identity.

Key Words : Chungju, Geographical names, Place identity, The politics of scale, Place name's territory

1. 서론

지명은 한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할 때 사용하는 공동의 기호로서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 갖는 최초의 인상 즉, 자연·인문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던 인상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서명인, 1998: 2). 이를테면, 어떤 장소의 거주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의 땅모양, 위치, 색상, 풍토, 기후, 산물, 교통, 전설, 동·식물, 유물, 유적 등에서

강한 인상을 받아 장소의 이름을 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명은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명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단서 제공과 지명 명명 당시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와 태도를 역추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도지명의 경우는 지명의 위치와 범위가 지도상에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지명 어휘의 분포와 그 특징을 밝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최정호,

* 송의여자대학 관광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Tourism, Soongui Women's College)(yhlee@sewc.ac.kr)

1987: 20). 예컨대 옛 지명의 위치를 찾아 작성한 지도지명은 추상적인 역사적 기술에 의해 추정된 국경의 한계를 밝히는 열쇠가 된다.

이처럼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의 특성이 내포된 지명은 지역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리학 분야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지리학 분야에서의 지명 연구는 지리교과서 편찬이나 지리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서 지명 연구(오상학, 2003; 조성욱, 2004; 장의선, 2004; 손유탉·한관중, 2006; 심정보, 2007)와 고지도에 표기된 동해지명의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기석, 1998; 양보경, 2004), 그리고 국제 항해의 안전은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해양연구와 해저자원 보호를 위한 해저지명 연구(주성재, 2006; 최진용·권영락, 2006; 성효현, 2006)가 있다. 이외에도 환경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촌락지명을 분석한 연구(전경숙, 1979; 신현웅, 1981; 이환곤, 1986; 안교식, 1989; 김옥자, 1992; 이학원의, 1996)와 지명의 유래와 분포에 관한 연구(박경준, 2003; 김정미, 2003; 임종욱, 2003; 오영선, 2003) 그리고 역사지리적인 측면에서의 지명연구(이민부·전종환, 2005; 이준우, 2006; 전영권, 2006) 등이 있다.

지리학 분야에서의 지명연구는 이처럼 지리교육, 고지도, 지명의 국가 관할권, 지명의 유래와 분포, 촌락지리, 역사지리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폭 넓은 관점만큼이나 연구방법은 다양하지 못하다. 일부 사료나 고지도에 나타난 지명을 대상으로 음차나 훈차 여부를 통해 연구대상 지명의 지명학적인 차이를 파악하거나(김기혁·윤용출, 2006), 지리적인 측면에서 지명의 의미탐색(장의선, 2008), 고지도의 분석(양보경, 2004, 이기석, 1998; 이기봉, 2005), 문헌내용과 학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론(임덕순, 1992; 남영우, 2008) 등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지명유형분류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명연구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구 공주목 진관구역의 지명연구(김순배, 2009)에 사용되었던 장소정체성, 스케일 정치, 그리고 영역경합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충주지명의 특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장소정체성의 개념은 철학의 정체성에 그 개념적 근거를 둔 것이 특징이다. 철학계에서 정체성은 '수적 유일성', '질적 동일성', '자아 동일성'을 이룰 때 그 개념이 확립된다. 여기서 '수적 유일성'은 타자와 다른 개별성을 갖는 다시 말해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질적 동일성'과 '자아 동일성'은 단일한 정의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내적 동일성' 또는 '같음'을 뜻한다(김순배, 2009, 43; 임병조, 2009, 91). Baldwin(2004)에 의하면, 정체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임병조(2009, 32)는 정체성의 개념은 차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장소정체성은 이와 같은 정체성의 개념에 근거했을 때, 다른 장소와 차별화할 수 있는 장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지명은 이러한 장소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이점은 구 공주목 진관지역을 대상으로 한 김순배의 연구(2009)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주지역 지명을 사례로 하여 지명이 장소정체성의 구성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케일(scale)은 지리적 영역의 상대적인 크기와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고정적이고 정태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생산되는 동태적 존재이다(김순배, 2009, 62). 이러한 속성을 가진 스케일은 사회·정치적 요인에 의해 수축되거나 확대되는데 이것을 류연택(2006, 38)과 정현주(2006, 482)는 스케일 정치라고 하였다. 김순배(2009, 63)는 스케일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러한 구성물이라는 가정에 근거하는 스케일 정치라는 개념이 지명 영역의 수축과 확장을 분석하는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케일 정치의 전략인 스케일의 상승과 하강을 통해 충주지역지명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역은 Storey(2001)에 의하면,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기관에 의해 점유된 공간으로서 경계를 통해서 외부와 구분된다고 한다.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정치적인 관점이다. Robert Ardrey(1967)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동물과 인간은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공간 방어 행동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Sack(1986)은

사회·정치적인 관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영역화하고, 이러한 영역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김순배(2009, 60)에 의하면 지명은 물리적이고 형상적인 차원에서 지리적 경계와 영역을 확인하고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영역적인 정체성을 재현하는데도 일조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영향력이 있는 사회적 주체들이 지리적 특성을 강조하여 어떻게 새로운 지명을 생성하고 지명영역을 확보하여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명을 통한 장소정체성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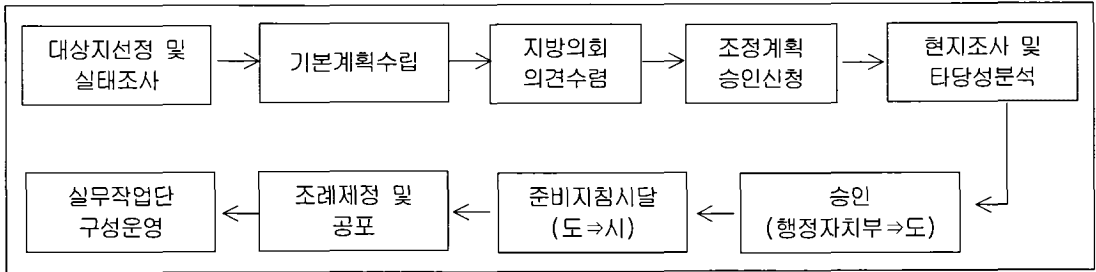
1) 지명 변경을 통한 장소정체성 재현

사회적으로 주체(자아)와 장소는 같다는 인식이 활발해지면서 지명이 장소정체성 재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충주시 수안보면이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안보면은 삼국시대부터 2005년까지는 상모면이었다. 이는 고문헌과 지도의 기록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고려사』에 “고구려 상모현이었는데 현종 9년(1018) 장연현에 속하게 되었다. 온천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람도보』의 「충청도지도」에는 이전의 행정명인 상모(上毛)라고 표기되어 있다. 『1929년 일제시가지형도』와 『1956년 충주지도』에는 괴산군 소속의 ‘상모면’으로 표기되어 있다. 수안보면의 옛 이름인 상모면은 1963년에 괴산군에서 증원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95년에 충주시로 흡수되었고 2005년에 상모면에서 수안보면으로 개칭되었다.

이렇게 상모면이 수안보면으로 개칭된 사유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행정지명과 온천지명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명칭에 불과하였던 상모면은 실제 많이 쓰이고 있는 수안보라는 지명과 서로 달라 혼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일부 지역주민들은 상모면을 수안보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수안보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충주시 상모면사무소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¹⁾ 및 단체²⁾가 그 명칭에 수안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고, 또 도

로표지, 이정표, 안내지도, 그리고 버스 행선지 등에도 모두 수안보라고 표시되어 있어 수안보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수안보온천이 지역의 주요 산업기반이자 생존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수안보온천이 위치한 곳은 온천이외에 별다른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명개칭을 통해 온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본래 수안보의 한자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이다. 수안보는 1788년경 이규경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에서 “호서의 연풍현 수안보(水安保) 땅에 온수가 있는데 수질이 좋아 병자가 많이 모여 든다”라는 내용으로 처음으로 언급된다. 이처럼 수안보의 한자가 처음에 ‘水安保’였다가 후에 ‘水安堡’로 바뀐 계기에 대해 이 지역 향토사학자 조일환은 일본군이 1894년 괴산군에 집결한 2만여 명의 동학군을 방비하기 위하여 일본군 2개 대대와 공병중대를 배치하면서 ‘水安保’가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水安堡’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바뀐 한자지명 ‘水安堡’가 온천명으로 사용된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수안보 온천의 경영권을 갖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한다(조일환, 2004, 17). 이러한 ‘水安堡’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지지(1918)』, 『신편 조선지지(1918)』, 『조선의 취락(1933)』, 『조선지도(1919)』, 『1929년 일제시가지형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안보의 끝 글자인 ‘保’가 방어를 의미하는 ‘堡’자로 바뀐 것은 일제 식민지시대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글자 뜻을 비교해 볼 때 편안함과 보존을 의미하는 ‘保’자가 훨씬 발전적인 좋은 글자이므로 지명개정 기회에 본래의 ‘保’자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칭사유에 의해서 충주시 상모면이 2005년 수안보면으로 개명되었다. 수안보면으로의 지명개명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명개명과정의 첫 단계는 지명개정요청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충주시는 이를 위해 2004년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실태조사결과 지역주민 98.3%(1,351세대)가 수안보면으로의 행정명칭 변경에 대하여 찬성을 하였고 1.7%(24세대)가 반대를 하였다.³⁾ 그리고 2004년 공청회 당시 나온 의견을 종합하면,



출처: 충주시 수안보면사무소, 2004, 면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그림 1. 지명 개명 절차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지명 인지도가 높은 수안보와 행정명칭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상모면이 혼돈되고, 수안보온천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행정명칭을 수안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충주시는 이러한 실태조사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상모면에서 수안보면으로 지명개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주시의회에서 수안보면으로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계획승인 신청을 냈다. 이 조정계획승인 신청 이후 지명개명에 대한 현지조사 및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행정구역 명칭변경(상모면→수안보면)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로 대체되었다. 2004년 당시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는 1,512세대를 대

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개표결과 찬성이 94%(1,344세대), 반대가 5% (72세대)였다⁴⁾. 충주시는 주민의견조사 개표결과 유효조사서의 80% 이상 찬성시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가능하여 상모면에서 수안보면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승인을 충청북도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게 되었다.

충주시 상모면은 이러한 지명개명절차에 의해 2005년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충주시 조례 제 670호)를 통해 충주시 수안보면(水安保面)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명칭변경에 관한 충주시 개정조례에는 지방자치법⁵⁾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⁶⁾ 내용과 지명 개정 이유 그리고 “읍명란의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한다. 상모보건지소를 수안보보건지소로 한다.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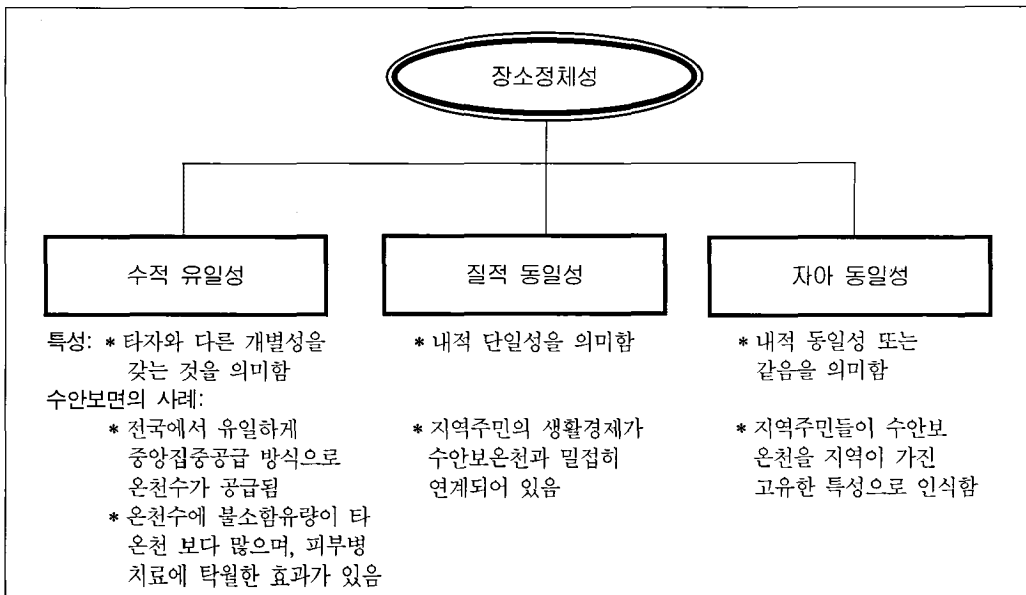


그림 2. 충주시 수안보면의 장소정체성

주시 수안보개발사업소의 위치를 ‘상모면’에서 ‘수안보면’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장소정체성은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이 ‘수적 유일성’, ‘질적 동일성’, 그리고 ‘자아 동일성’을 이룰 때 그 개념이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새로 바뀐 ‘수안보면’은 이전의 상모면보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인 온천의 속성을 크게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정체성 구성 조건인 ‘수적 유일성’과 ‘질적 동일성’ 그리고 ‘자아 동일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이를테면 수안보면의 ‘수적 유일성’은 타자와 다른 개별성을 갖는 천연자원인 수안보 온천 다시 말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집중공급 방식으로 온천수가 공급되고, 온천 성분 중에 불소 함유량이 많아 충치예방이 가능하며, 또 장기간 입욕 시 피부병 치유에 특별히 효험이 있는 온천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그리고 수안보면의 ‘질적 동일성’은 지역의 경제가 대부분 수안보 온천관광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점과 관련지워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수안보면 지역주민의 생활경제는 대부분 수안보온천과 관련된 관광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산간지역에 위치한 수안보면은 겨울철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 잉여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잉여 노동력은 관광산업 각 분야에 한시적으로 고용된다. 그리고 여름철 관광성수기 때는 수안보면 온천지구 내의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수안보면에 있는 농가가 민박집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자아동일성’은 지역주민이 어떠한 현상을 지역의 특성으로 받아들일 때 성립되는데, 온천 이외에 다른 부존 자원이 없는 수안보면의 지역주민들은 수안보 온천을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상모면이 충주시 개정조례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안보면으로 명칭변경이 되던 2005년에는 지명개정을 기념하기 위해 주민 700여 명이 수안보면 물탕공원과 면사무소에서 기념행사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바뀐 수안보면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조건 즉, ‘수적 유일성’, ‘질적 동일성’, ‘자아 동일성’ 모두를 충족시키고, 온천이라는 이 지역의 정체성을 잘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2) 지명을 통한 일본의 정체성 구축

일본은 식민통치기간 우리나라 지명을 일본식 지명으로 바꿔 일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충주의 중심지는 본래 읍내리에 속했는데, 1931년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읍제(邑制)를 실시하면서 일본식 명칭을 붙여 중앙지를 본정(本町), 남부지역을 영정(榮町), 서부지역을 금정(錦町), 서북부지역을 대수정(大手町)이라 명명하였다(충주시, 2001, 59). 정(町)은 본래 일본에서 시가지를 소구분한 지역 명으로서 우리나라의 동에 해당하는데 1929년에 제작된 일제시가지형도(1:10,000)에서 이러한 일본식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명들은 1946년 일본식 지명에 대한 개칭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본정을 성내동으로, 영정을 성남동으로, 대수정을 성서동으로 개칭하였지만, 충주시민 중에서 196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현재도 본정, 대수정 등의 일본식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중 특히 대수정은 파생지명으로 남아 있는데 충주공설시장 입구 쪽의 대수정 다리가 그 예이다.

일제강점기 이처럼 일본이 그들 고유의 행정지명인 정(町)을 우리나라에 사용한 것은 ‘수적 유일성’, ‘질적 동일성’, ‘자아 동일성’의 세 가지 정체성 구성 조건 중에서 타자와 다른 개별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수적 유일성’과 내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질적 동일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은 일제강점기 정(町)이라는 일본 고유의 지역구분 명칭을 충주시까지 지명으로 사용하여 일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국인 한국 내에서 일본과 동일한 제도를 유지하여 일본의 정체성을 고수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 지명 영역의 변화

1) 지명의 스케일 변화

스케일(scale)은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생산되는 동태적 존재로서 사회·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수축되거나 확대되는데 본 절에서는 김순배(2009, 63)가 스케일 정치의 전략으로 제시한 스케일의

상승과 하강을 통해 충주지명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명 스케일 상승의 사례로는 충주시 이류면⁷⁾의 옛 지명인 이안면을 들 수 있다. 이안면은 고려시대 ‘다인철소’라 하여 철을 다루던 특수 수공업자 집단이 있었던 신분이 낮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몽고 침입 시 모든 백성이 침략에 맞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여 이안현으로 승격되었다.⁸⁾ 다시 말해서 면에서 현으로 승격된 사례이다.

다음 지명의 스케일 하강사례로는 충주지역에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지명의 스케일 하강 첫 번째 사례로는 조선시대 읍호승강제(邑號昇降制)⁹⁾에 따른 충주의 읍호승강을 들 수 있다. 읍호승강제는 왕권을 정점으로 한 중앙통치세력이 행정단위 지방민에게 집단상별적 조치를 강제적·타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중앙통치세력에 대한 충성과 협조를 강요하고, 지방민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해당지역의 연대책임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법(임승표, 1999, 1)이다. 이러한 읍호승강제는 1708년(숙종 24) ‘수교집록(受敎輯錄)’에 법조항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임승표, 1999). 첫째, 아비, 어미, 남편, 주인, 관장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의 아내, 아들, 딸은 노비로 삼으며, 집은 헐어 못으로 만든다. 둘째, 해당 읍의 수령은 과직한다. 셋째, 죄인의 거주 읍은 모두 현감 고을로 강등하며, 현감 고을은 혁파하지 않되 현의 서열 맨 뒤에 위치

시킨다. 넷째, 10년을 기한으로 복구시킨다. 다섯째, 반역죄의 경우도 같은 법을 적용하며, 결안 후 지례 자살한 경우도 똑같이 적용한다. 여섯째, 전패(殿牌) 사건이 발생한 읍은 읍호를 강등하거나 수령을 파직하지 않으며 향교 위판 사건도 똑같이 적용한다. 표 1은 이러한 읍호승강제에 따른 충주의 읍호승강의 사례이다. 충주는 반역, 모반, 태실 변경, 남편 및 부모 살해 등으로 열두 차례 충주목에서 충원현 또는 예성도호로 강등되었다.

지명 스케일 하강의 두 번째 사례로는 1917년 행정구역개편 때 군현지명이 면지명으로 축소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충주는 조선시대 읍호승강제에 따라 한시적으로 충주현으로 강등된 경우가 있었지만 다시 충주목으로 회복되어 충주목사가 통치하였다. 그러다가 1895년 감영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되면서 충주부(忠州府)가 되었고 1908년에는 충청북도 관찰도가 청주로 이전하고 충주군이 되었다가 1917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의해 충주면이 되었다(충주시, 2001, 58). 이러한 지명의 스케일 하강은 지도에 표기된 지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중기에 나온 『여지고람도보』의 충청도지도와 『해동지도첩』 충주목지도 그리고 제작 년대를 알 수 없는 『여지도』의 「충청도지도」에서 충주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15년에 발행된 일제시기지도(1:50,000)와 1929년에 발행된 일제시기 지형도(1:10,000)에서는 모두 충주면으로 표기되어 있다.

표 1. 조선시대 충주의 읍호승강(邑號昇降)

본 읍호	변경읍호	승강년도	지명회복년도	원인
충주 목사	강등시키지 않음	1499(연산5)		남편살해
충주 목사	예성(藥城) 도호	1540(중종 35)	1540(중종 35)	부모살해
충주 목사	유신(維新) 현감	1549(명종 4)	1567(선조 즉위년)	이홍남의 모반
충주 목사	충원(忠原) 현감	1613(광해군 5)	1623(인조 1)	류인발의 반역
충주 목사	충원(忠原) 현감	1628(인조 6)	1637(인조 15)	안집중의 반역
충주 목사	충원(忠原) 현감	1644(인조 22)	1653(효종 4)	채문형의 반역
충주 목사	충원(忠原) 현감	1680(숙종 6)	1689(숙종 15)	부모살해
충주 목사	충원(忠原) 현감	1730(영조 6)	1738(영조 14)	이조겸의 반역
충주 목사	충원(忠原) 현감	1755(영조 31)	1764(영조 40)	남편살해
충주 목사	충원(忠原) 현감	1817(순조 17)	1826(순조 26)	반역
충주 목사	처리 미상	1831(순조 31)		경종의 태실을 바꿈

자료출처: 『조선각도읍지(1929년)』, 임승표, 1999, 조선시대 읍호승강제 운용과 읍호·도명의 변화추이, 1999년 문화역사 지리학회 발표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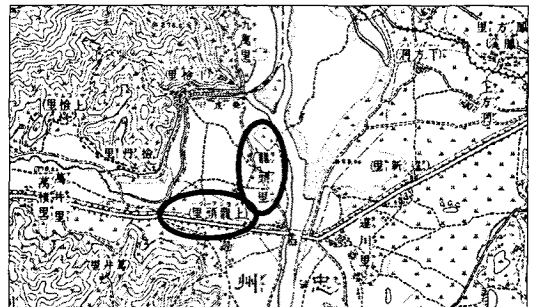
지명 스케일 하강의 세 번째 사례로는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과 경상북도 문경시에 걸쳐 있는 월악산(1,093m)을 들 수 있다.¹⁰⁾ 월악산은 조선시대 말까지 고지도와 고문헌에 ‘月岳山’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예컨대, 『고려사』에 “고종 42년(1255) 10월에 몽고병이 대원령, 즉 하늘재를 넘으니 충주에서 정예 군사를 내어 몽고군 1,000여 명을 죽였다. 고종 43년(1256) 5월에도 충주성과 월악산(月岳山)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고 『동국여지지』에는 “동서쪽 15리에 위치해 있다. 이종인이 月岳山을 배경으로 시를 지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해동지도』 「충주목지도」에는 충주읍성 북쪽으로 月岳山이 덕주사와 함께 표기되어 있고, 『여지도서』에 삽입된 충청도지도에서도 月岳山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삽입된 충청도지도에는 月岳山이 충주 남동쪽에 표기되어 있다. 『여지고람도보』의 충청도지도에는 월악(月岳)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18세기 말기)』의 「충청도지도」에는 산모양의 그림과 함께 月岳山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月岳山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는 ‘月樂山’¹¹⁾으로 한자명이 바뀌었다. 일본이 이처럼 일제강점기 ‘月岳山’을 ‘月樂山’으로 바꾼 것은 산의 품격을 격하시키기 위해서였다. 일본에서 ‘岳’은 높고 큰 것을 의미하여 해발고도가 높고 산체가 큰 산에 붙인다고 한다.¹²⁾ 반면에 ‘樂’은 즐긴다는 의미로 작은 동산에 붙여 사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민족의 정기가 서려있는 높은 산이란 의미의 ‘月岳山’은 일제강점기 달을 즐기는 뒷동산이란 의미의 ‘月樂山’으로 사용됨으로써 산의 품격이 격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지명 영역의 형성과 변화

지명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영역적인 정체성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 주체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자 지리적 특성을 강조한 새로운 지명을 만들고 지명영역을 확보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지명영역은 변화하여 왔는데 충주 지역에서 지명 영역변화의 사례로는 지명 표기자가 지명 영역과 더불어 변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지명 표기자가 지명 영

역과 함께 변화한 사례로는 충주시 용두동과 이류면 금곡리를 들 수 있다. 먼저 충주시 용두동은 내고장전통가꾸기(1981)에 수록된 전설에 의하면 이무기가 용으로 탈바꿈하여 승천할 때 용의 머리를 본 마을이라고 해서 용두동(龍頭洞)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용두동은 조선시대 말까지 용두리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 지역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지명이 생성되었는데 이 때 마을의 고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지역주민 수가 많은 곳을 ‘상용두’, 마을의 고도가 낮으며 민가가 2~3채만 있는 곳을 ‘하용두’라 하였다고 한다.¹³⁾ 현재 상용두 마을의 고도는 이 지역을 흐르는 달천강의 제방 높이와 같고, 하용두 마을은 달천강 제방 아래의 배후습지와 그 높이가 같다(사진 1, 2). 이러한 용두동의 영역 변화는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용두동은 『구한말지도(1890)』에는 용두로 표기되어 있는데 반해서 『일제시기지형도(1914)』와 『1956년 충주지도』에는 용두리와 상용두리로 표기되어 있다(지도 1). 여기서 용두리는 현재 하용두 마을을 의미한다.

다음 이류면 금곡리의 쇠실고개, 상금곡(윗 쇠실), 하금곡(아랫 쇠실)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 ‘다인철소’라 하여 철을 다루던 특수 수공업자 집단이 있던 지역이라는 의미의 ‘쇠실’이라는 고유지명에서 파생된 지명이다(김순배, 2009, 61). 이러한 지명들은 지형적인 특징과 해발고도에 따라 상이한 지명영역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쇠실고개는 충주시의 이류면 금곡리와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사이에 있는 통로 역할을 했던 고개



지도 1. 『1914년 일제시기지형도(1:50,000)』에 표기된 상용두와 하용두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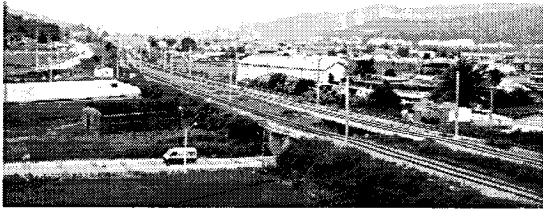


사진 1. 상용두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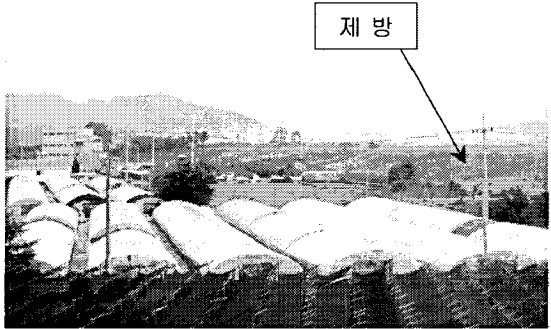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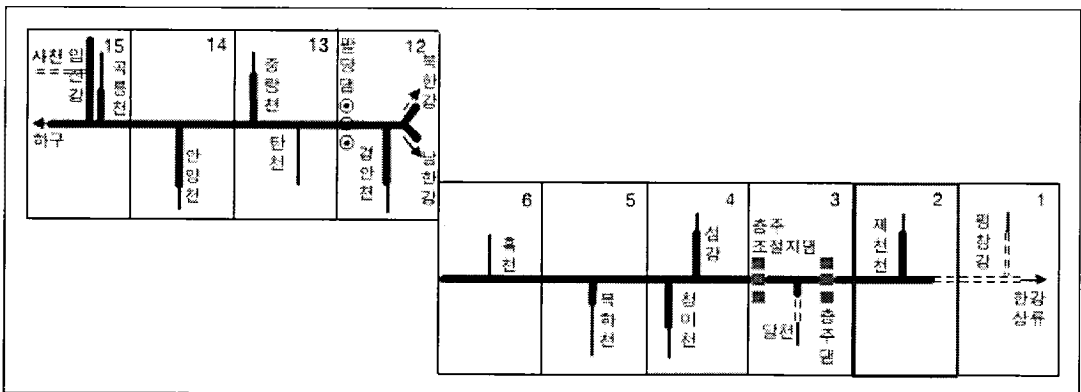


사진 2. 하용두 마을

에 붙여진 지명이고, 상금곡(上金谷)은 어래산 200미터 이상 높이에 있는 마을이어서 '윗 쇠밭'이란 지명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하금곡(下金谷)은 160미터 높이의 어래산 산록완사면에 위치한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어서 '아랫 쇠밭'이란 지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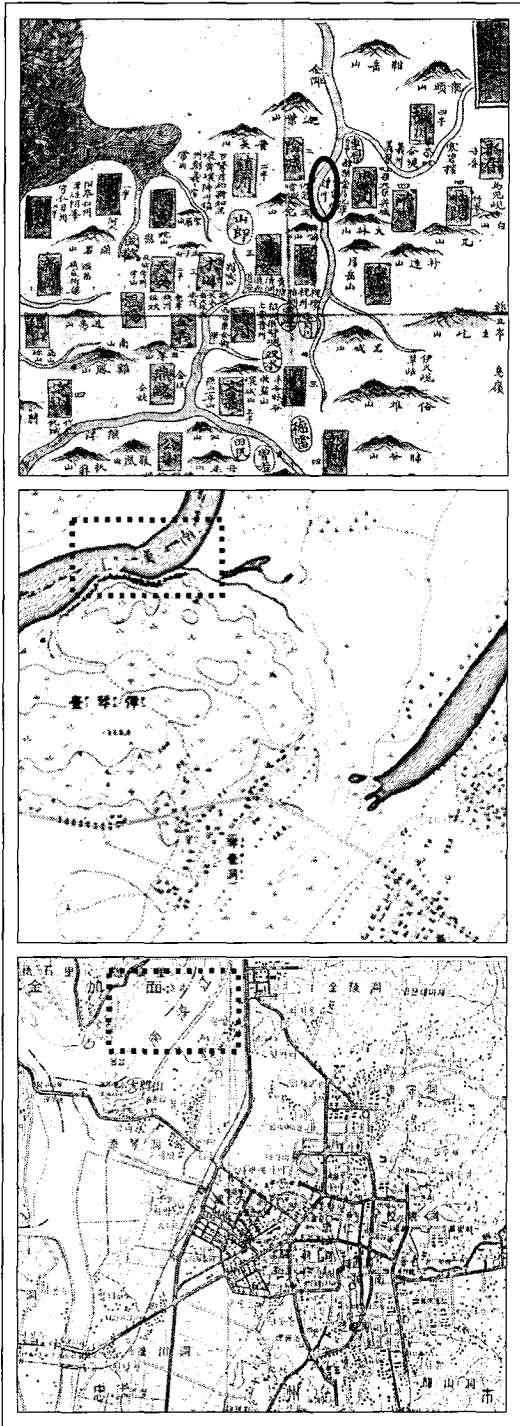
하천지명은 하천유역과 지류의 구분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해 다양하게 지칭되어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중앙과 지방행정 권력에 의해 특정한 지명으로 하천의 상·하류를 통칭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김순배, 2009, 61-62).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현재 충주시를 동서로 흐르는 달천을 들 수 있다. 달천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괴산군을 거쳐 충주시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덕천(德川)이라고도 한다. 고을 서쪽 8리에 있다. 근원이

보은현 속리산 꼭대기에서 나와서 물이 세 갈래로 나뉘었는데, 그 하나가 서쪽으로 흘러 달천이 되었다. 배를 띄우고 겨울에는 다리를 놓는다. 이행이 능히 물맛을 변별하였는데, 달천 물을 제일이라 하여 마시기를 좋아하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처럼, 달천은 조선 초 품천(品泉)의 일인자인 이행에 의해 ‘조선 제일의 물맛’을 가진 하천으로 평가되었다. ‘물이 달다’라는 뜻을 가진 달천은 『조선팔도고금총람도(1640년)』, 『팔도지도첩 충청도지도(1776년 이후로 추정)』, 『여지도첩 충청도지도(18세기 말기)』, 『동국지도(19세기 전기)』, 『공충도(19세기 전기)』, 『대동여지도(1861)』, 『해동지도』 충주목지도(연대미상), 『구한말지도(189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시대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달천은 조선시대 말까지 충주의 하운을 담당하였던



자료출처: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www.river.go.kr), 한국하천일람 모식도

그림 2. 남한강 유역의 하천지명 분포(북한강 삭제)



자료: 상-『팔도지도』의 충청도지도(17세기 초기),
 중-1929년 일제시기지형도(1:10,000),
 하-1992년 충주지도(1:50,000)

지도 2. 하천지명의 영역 경합

주요 하천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는 <지도 2>에 제시된 바처럼 중앙 및 지방행정 권력에 의해 남한강으로 공식적으로 표기되고 불리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달천은 남한강과의 지명 경합과정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었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공식적인 측면에서 사용빈도가 현격히 줄어들게 되었다.¹⁴⁾ 이와 같은 달천의 사례는 김순배(2009, 62)가 금강 하천지명 연구를 통해서 밝힌 “지명의 구심력으로 인하여 하천 지명의 다양성은 감소하고 그 대신 효율성과 통일성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연구결과를 잘 뒷받침해 준다.

4. 결론

그동안 지명에 대한 지리학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폭 넓게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연구방법은 다양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지명의 유형분류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명연구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장소정체성, 스케일 정치 그리고 영역경합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충주지역 지명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로 바뀐 충주시 ‘수안보면’은 이전의 상모면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인 온천의 속성을 크게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구성 조건인 ‘수적 유일성’, ‘질적 동일성’, ‘자아 동일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 이를 테면, 수안보면의 ‘수적 유일성’은 타자와 다른 개별성을 갖는 천연자원인 수안보 온천을 가지고 있는 점과 연관되며, ‘질적 동일성’은 지역의 경제가 대부분 수안보 온천관광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자아 동일성’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어떠한 현상을 지역의 특성으로 받아들일 때 성립되는데, 온천 이외에 다른 부존자원이 없는 수안보면의 지역주민들은 수안보 온천을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개칭된 충주시 수안보면은 정체성의 구성조건인 ‘수적 유일성’, ‘질적 동일성’, ‘자아 동일성’의 조건을 모두 갖추므로 장소정체성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지명을 통한 스케일 정치는 스케일의 상승

과 하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지명 스케일 상승의 사례로는 충주시 이류면의 옛 지명인 이안면을 들 수 있다. 이안면은 고려시대 '다인철소'라 하여 철을 다루던 특수 수공업자 집단이 있었던 신분이 낮은 지역이었는데, 몽고 침입 시 모든 백성이 침략에 맞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여 이안면으로 승격되었다. 지명의 스케일 하강사례로는 조선시대 읍호승강제에 따른 충주의 읍호승강과 1917년 행정구역개편 때 충주군현지명이 충주면으로 축소된 경우와 일본에 의한 월악산의 한자지명의 변경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본래 민족의 정기가 서려있는 높은 산이란 의미의 '月岳山'을 달을 즐기는 뒷동산이란 의미의 '月樂山'으로 한자명을 변경하여 산의 품격을 격하시켰다.

그리고 지명 영역변화의 사례로는 지명 표기자가 지명 영역과 더불어 변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지명 표기자가 지명 영역과 함께 변화한 사례로는 충주시 용두동과 이류면 금곡리가 있다. 그리고 지명 표기자가 변하지 않으면서 지명 영역이 변화한 경우는 현재 충주시를 동서로 흐르는 달천을 들 수 있다. 달천은 조선시대 말까지 주요 하운을 담당하였으나 일제강점기 이래로 남한강과의 지명 경합과정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었고, 공식적인 측면에서도 사용빈도가 현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명이 장소정체성을 재현하고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소의 경쟁이 심화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역의 경쟁적 이점은 지역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이희연, 2005, 36), 최근 국가의 역할 축소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화 현상은 새로운 경쟁의 주체로서 지방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최재현, 2005, 2) 지역경쟁력이 될 수 있는 장소정체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장소정체성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적 복지와 사회적 활력을 도모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지명은 본 연구를 통해 밝혔듯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따라서 지명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장소정체성 표출과 관련하여 하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점은 자칫 지명개칭

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김순배가 구 공주목 진관구역 지명연구를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론이 충주지역 지명 연구에도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명유형분류에 치우친 지명연구에 방법론을 다양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지명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지 못하고 김순배가 사용하였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방법론에 맞게 연구지역의 지명을 선별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지명 연구방법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GIS를 이용한 보다 과학적인 방법이 지명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

- 1) 수안보파출소, 수안보우체국, 수안보농협, 수안보신협, 수안보소방파출소, 수안보중학교, 수안보초등학교, 수안보개발사무소
- 2)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수안보음식업조합, 수안보라이온스클럽, 수안보자율방범대 등
- 3) 총 세대수- 1,517세대, 의견수렴- 1,375세대(91.8%), 찬성- 1,351세대(98.3%), 반대- 24세대(1.7%), 미수렴- 142세대(출타 또는 미거주)
- 4)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관한 주민의견조사 집계결과(2004년 11월 4일)
총세대수: 1,507
의견조사서 교부 매수: 1,441
의견조사서 회수 매수: 1,426
찬성: 1,344
반대: 72
무효수: 10
미회수 매수: 15
회수율: 98.96%
- 5) 제4조 제3항의 규정.
- 6) 행정자치부 제2004-2호.
- 7) 이류면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이안과 류동의 두 개의 면이 합쳐져 이루어진 지역이다.
- 8) 길경택, 류봉희, 1996, 충주 이류면 치철(治鐵)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충주박물관, p.3.
- 9) 읍호승강제(邑號昇降制)의 운영 목적은 왕권을 정점으로 한 중앙통치세력이 행정단위 지방민에게 집단상벌적 조치를 강제적·타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중앙통치세력에 대한 충성과 협조를 강요하고, 지방민의 왕권에 대한 도전도 해당지역의 연대책임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시대 이러한 읍호승강제의 영향은 사회, 정치, 경제, 행정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사례로는 고을에 읍호승격의

- 원인만 제공되면 읍호를 승격시키기 위하여 상소나 뇌물도 서슴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정치적 영향의 사례로는 읍의 지위가 하락되어 주거지를 타읍으로 옮겨 과거에 읍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세 번째 경제적 영향의 사례로는 읍호가 승감함에 따라 읍격에 맞게 전정(田丁)의 수가 재조정되고 노비와 아전의 정원 수가 증감된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 행정적 영향의 사례로는 읍호승강에 따라 관아에 속하였던 사람들의 위치가 재조정되고, 격이 하락된 경우 일부 관속들은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 타읍에 분속된 것을 들 수 있다(임승표, 1999, 1-3).
- 10) 월악산은 지명영역이 변화한 사례가 아니라 글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가 격하된 사례로 볼 수 있다.
 - 11) 일제강점기 제작된 일제시기지형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12) 일본에서 약(岳) 자가 지명에 들어가는 산은 일본의 100대 명산 중에서 총 35%를 차지하며, 평균 고도는 2,495m이다. 따라서 비교적 높고 큰 산을 지명을 통해 드러내고자 할 때 '약' 자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약' 자가 들어가는 산이름은 다음과 같다:
미야노우라다케(宮之浦岳, 1,936m), 가이몬다케(開聞岳, 924m), 아라시마다케(荒島岳, 1,524m), 히지리다케(聖岳, 3,013m), 데카리다케(光岳, 2,591m), 와루사와다케(悪沢岳, 3,141m), 시오미다케(塩見岳, 3,052m), 기타다케(北岳, 3,193m), 센조가타케(仙丈ヶ岳, 3,033m), 가이고마가타케(甲斐駒ヶ岳, 2,967m), 기소코마가타케(木駒ヶ岳, 2,956m), 우즈기다케(雲木岳, 2,864m), 아카다케(赤岳, 2,899m), 노리쿠라다케(乗鞍岳, 3,026m), 가사가타케(笠ヶ岳, 2,893m), 조넨다케(常念岳, 2,587m), 호타카다케(穂高岳, 3,190m), 야리가타케(槍ヶ岳, 3,180m), 스이쇼다케(水晶岳, 2,986m), 구로베고로다케(黒部五岳, 2,840m), 야쿠시다케(師岳, 2,926m), 가시마야리가타케(鹿島槍ヶ岳, 2,889m), 시로우마다케(白馬岳, 2,932m), 고부시가타케(甲武信ヶ岳, 2,475m), 다나가와다케(谷川岳, 1,977m), 히우치가타케(嬬ヶ岳, 2,356m), 히라가타케(平ヶ岳, 2,141m), 우오누마코마가타케(魚沼駒ヶ岳, 2,003m), 아이즈코마타케(津駒ヶ岳, 2,133m), 아사히다케(朝日岳, 1,870m), 포로시리다케(幌尻岳, 2,052m), 도카치다케(十勝岳, 2,077m), 아칸다케(阿寒岳, 1,499m), 사리다케(斜里岳, 1,547m), 라우스다케(羅臼岳, 1,661m)
자료출처: <http://www.jtour.com/review/list.html?page=7&id=mountain&key=&keyfield=>
 - 13) 남자, 1934년생, 충주시 용두동 하용두 마을 거주 (2010년 4월 11일 인터뷰).
 - 14) 그렇지만 충주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남한강보다는 달천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문헌

- 김기혁·윤용출, 2006, 조선 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38-62.
- 김순배, 2009,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구 공주목 진관 구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김옥자, 1992,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2003, 김포시 지명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우, 2008, 두모계 고지명의 기원과 분포,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서울, 35-58.
- 류연택, 2006, 스케일의 정치와 도시주택공간 생산, 2006년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박경준, 2003, 동·서해안 지역의 지명 비교 사례 연구 -화성시와 강릉시의 자연총락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명인, 1998, 청원군 지명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찬기, 1965, 중학교 외국 지리학습을 위한 적정 지명의 연구, 논문집 9, 173-187.
- 성효현, 2006, 한국에서 해저지명 부여를 위한 활동, 대한지리학회지, 41(5), 600-622.
- 손용택·한관중, 2006,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지명 왜곡과 오류 실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5(4), 83-106.
- 신현웅, 1981, 충북 보은군 촌락명의 유형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정보, 2007, 사회과 지리 영역에서 지명교육의 현상과 필수지명의 선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5(2), 125-140.
- 안교식, 1989, 경남 합천군 취락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 16(1), 89-111.
- 오상학, 2003,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지명 분석, 지리학 연구, 37(3), 227-240.
- 오영선, 2003, 제주도 마을의 지명분포와 유래에 관한 연구 -남제주군 안덕면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봉, 2005, 청구도와 동여도의 지명 위치 비정

- 에 대한 일고찰 -충청도의 해미현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7(1), 84-102.
- 이기석, 1998, 동해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33(4), 541-556.
- 이민부·전종한, 2005, '추가령'지명의 지형학 및 역사지리적 해석, 문화역사지리, 17(1), 47-65.
- 이영희, 2001, 관광지 라이프사이클 모형개발-수안보온천을 사례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희, 2006, 지명 속에 나타난 북한 개성시의 자연경관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1(3), 283-300.
- 이준우, 2006, 대구지역의 지명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도호부 본부지역의 동·리명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원·정장호·김창환, 1996,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강원문화연구, 15, 3-24.
- 이환근, 1986, 충청남도의 지명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 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연구에서 장소마케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35-53.
- 임덕순, 1992, 정치지리학적 시각으로 본 동해지명, 대한지리학회지, 27(3), 268-271.
- 임병조, 2009,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대한지리학회지, 44(1), 89-104.
- 임승표, 1999, 조선시대 읍호승강제 운용과 읍호·도명의 변화추이, 1999년 문화역사지리학회 발표자료집.
- 임종욱, 2003, 남해군 자연마을 지명 유래와 그 분포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의선, 2004, 지리와 내용요소로서 '지명'의 의미 탐색과 교수-학습의 실제, 사회과교육, 43(2), 227-246.
- 전경숙, 1978, 충청북도 지명의 유형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진천군과 단양군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권, 2006, 고문헌의 지명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전통 지형관-대구지역을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13(4), 9-17.
- 정현주, 2006, 사회운동의 공간성: 사회운동연구에 있어서 지리학적 기여에 대한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41(4), 470-490.
- 조성욱, 2004a, 지리교육에서 지명학습의 의의와 도입방안, 지리과교육, 6, 79-94.
- 조성욱, 2004b, 지역 인식과 지명의 역할, 지리교육논집, 48, 208-221.
- 주성재, 2006, 해저지명 제정의 국제적 관례와 동해 해저지명 제정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41(5), 630-638.
- 조일환, 2004, 면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공청회 자료집.
- 충주시, 내고장전통가꾸기 편찬위원회, 1981, 내고장전통가꾸기, 충주시, 충주.
- 충주시, 2001, 충주시지, 충주시, 충주.
- 충주시 수안보면사무소, 2004, 면 명칭 변경 추진 위원회 회의자료.
- 최재현, 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1-17.
- 최진용·권영락, 2006, 동해 해저지형의 명명, 대한지리학회지, 41(5), 623-629.
- 최정호, 1987, '없는 것을 찾는 젊은이들', 지도와 지명과 역사교육, 나남, 20(강길부, 1997, 땅이름 국토사랑, 집문당, 34에서 재인용).
- 고려사, 부산 동아대학교(1999).
- 구한말지도(1:50,000), 일본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1890).
- 공충도, 19세기 전기, 채색사본, 윤형두 소장.
- 대동여지도, 김정호, 1861, 서울대 규장각 필사본 소장.
- 동국지도, 19세기 전기, 서울대 규장각 필사본 소장.
- 동국여지지, 유형원, 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83).
- 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1996).
- 五州衍文長箋散稿, 이규경, 고전간행회 영인본(1959).
- 여지고람도보첩 충청도지도, 18세기 중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여지도 충청도지도, 서울대 규장각 소장
- 여지도서, 국사편찬위원회 영인(1973).
- 朝鮮地圖(1:2,400,000), 1919.
- 조선팔도고금총람도, 1673, 김수홍,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충주지도(1:50,000), 국립지리원(1979).

- 충주시 행정지도(1:90,000), 국립지리원(1995).
 충주 일제시기지도(1:50,000), 조선총독부 조선임
 시토지조사국(1915).
 충주 일제시기지형도(1:10,000), 조선총독부 제작
 (1929).
 충주지도(1:50,000), 김능수, 삼능공업사(1956).
 팔도지도첩 충청도지도, 1776년 이후로 추정, 국
 립중앙도서관 소장.
 해동지도 충주목지도, 서울대규장각 영인(1995).
 光岡雅彦, 1982, 韓國古地名の謎, 學生社, 동경.
 善生永助(編), 1927, 朝鮮の聚落, 韓國地理風俗地叢
 書(139), 경인문화사 영인본.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
 覽, 兵林館印刷所.
 日高友四郎, 1924, 新編朝鮮地誌, 韓國地理風俗地叢
 書(201), 경인문화사 영인(1995).
 朝鮮及滿洲社(編), 1918, (最新)朝鮮地誌, 朝鮮及滿
 洲社出版部, 경성.
 朝鮮博文社(編), 1929, 朝鮮各道邑誌, 朝鮮博文社,
 경성.
- Ardrey, R., 1967, *The Territorial Imperative: A Personal Inquiry into the Animal Origins of Property and Nations*, Collins, London.
- Baldwin, E., 2004, *Cultural Studies*, Prentice Hall, New York.
- Sack, R. D., 1986,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torey, D., 2001, *Territory: the Claiming of Space*. Prentice Hall, London.
- 하천관리지리정보웹시스템 <http://www.river.go.kr>
- 교신: 이영희, 100-751, 서울시 중구 예장동 승의여자 대학 관광과(yhlee@sewc.ac.kr, 전화: 02-3391-8538)
 Correspondence: Lee, Younghee, 100-751, Department of Tourism, Soongui Women's College, Yejong-dong, Jung-gu, Seoul(yhlee@sewc.ac.kr, Tel: 82-2-3391-8538)
- (접수: 2009.12.26, 수정: 2010.1.21, 채택: 2010.3.10)